

# 걸어 다니는 자료실 모으고 모아 역사로

아카이비스트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김달진 관장은 월간 서울아트가이드 편집인이며 김달진미술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하다.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한국 근현대 미술자료를 수집해온 그에 대한 수석이 다양하다. '금요일의 사나이'부터 '걸어다니는 미술사전', '미술계 인간 자료실' 등. 1980년대에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근무할 때 매주 금요일 큼직한 소포백을 들고 인사동과 동소문동의 갤러리를 순회하면서 미술 전시 팸플릿을 모으다가 붙은 이름들이다.

지난 1월24일 서울 종로구 홍지문1길에 있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방문해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자료 아카이비스트인 김달진 관장을 만나 박물관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도 사진과 관련된 회귀자료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했고 5일 전화를 보충 취재를 했다. 현재 김달진미술관에는 우리나라 어린이 놀이와 관련된 최초의 보급판 서적으로 알려진 <조선 아동화담> 1891년 초판 등 희귀한 책을 포함하여 단행본과 작가 화집 1만여권, 정기간행물 300여종 1만여권, 미술학회지 57종 1500여권, 1910년대부터 나온 미술교과서 300여권, 인쇄매체에 나온 기사스크랩을 모은 'D폴더 작가파일' 360명분 등의 자료가 있다.

1910년대 이후 미술교과서 300여권도 지난해 2월에 열렸던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 전시도 그랬고 올해 3월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전'도 전시 품목 중에서 사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르코르뷔지에의 경우 건축물을 찍은 사진이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 조각가인 자코메티 전시에도 그가 작업하는 사진들이 아주 많이 전시장에 걸려서 관객의 이해를 돕고 있다.

김 관장도 사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아카이브형 전시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박수근이다. 이중섭이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분들의 작품에만 열광했는데 더 깊이 들어가려면 그분들을 둘러싼 자료, 하다못해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된 물감까지 밝혀져야 한다. 이중섭이 일본인 부인과 자식들에게 보낸 애뜻한 편지 같은 것이 관객의 시선을 붙잡는다. 이런 점에서 사진은 대단히 유용하다. 지금은 예술적 사진도 많



매주 금요일이면 소포백 들고  
인사동 등 돌며 전시 팸플릿 수집

중학생 때부터 껌종이 우표 등 모으다  
신문과 잡지 그림 관련 기사 오려  
시대·유파별 서양미술 스크랩북 10권

국립현대미술관·가나아트 전문직 거쳐  
2001년 본인 이름의 연구소 차려

도록 없어 제목만 있던 국전 작품이나  
미공개 유명 화가 그림 사진집 실려  
"다큐멘터리 성격의 사진이 가진 힘"

해방공간 창간 '국제보도' '사진문화'  
김구 피살 현장 등 희귀 자료 많아



김달진 관장이 지난 1월 그의 박물관 전시실에서 사진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등장하지만 본질적으로 사진은 다큐멘터리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 시대의 역사적 사건은 글로 설명하기보다는 사진이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관장에 따르면 초기의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에선 도록을 만들지 않았다. 심사위원이나 초대작가 등의 작품이 제목으로만 전해지고 있다가 김 관장이 수집한 <국제보도>와 <한국화보>라는 잡지에 국전 기사가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작품 이미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최초의 자료가 되었다는 것이다. 김 관장은 "1954년에 나온 <한국화보>엔 천경자의 그림 도판 중에서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보리>(영문 작품 제목 <Barley>)가 실렸다. 이 작품을 실물사진으로 본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모두 사진의 도움이자 사진의 힘이다"라고 말했다.

"어린 학생이 이런 일을" 토다토다

김 관장은 중학생 때부터 뭘 모으는 게 좋았다. 처음엔 껌종이, 담뱃갑, 우표 같은 것이었다. 그러다가 신문과 잡지에서 그림 관련 기사가 나면 오렸다. 르네상스부터 인상주의, 초현실주의까지 시대별·유파별로 나눠서 10권짜리 서양미술 전시 스크랩북이 완성되었다.

미술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내 만나달라고 했으나 모두에게 거절당하다가 이경성(당시 홍익대 교수)씨가 한번 만나자고 했다. 김 관장은 보자기로 스크랩북 10권을 싸서 들고 찾아가 대뜸 큰절을 하고 보여드렸다. 이경성 교수가 "어린 학생이 이런 일을 다 했다"며 토닥터려주었는데 천군만마나

다름없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1972년 고3 여름 경북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근대미술 60년전'이었다. 서양미술만 스크랩해오다가 우리 근대미술의 주옥같은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궁금궁금 이 생겼다. 김환기, 박수근 등 이런 사람들 자료는 찾기가 쉬웠는데 그 당시 초대작가나 심사위원처럼 유명한 인물들의 자료가 거의 전무한 것이었다. 놀라고도 이상했다. 그날부터 김 관장은 한국 근현대 미술자료 수집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전시장을 돌며 자료를 모으던 김 관장은 1978년 <월간 전시계>에서 미술 쪽 일을 시작해 국립현대미술관을 거쳐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까지 거쳤고 2001년에 본인의 이름을 건 김달진미술연구소를 열었다.

김 관장이 오래된 사진 관련 자료들을 수장고에서 꺼내 왔다. 처음 접하는 것이 많았다. 1952년에 만든 사형참립 제1회전 팸플릿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1945년 박영진과 이해선이 주도하여 대한사진예술연구회가 창립되었고 이후 1952년에 임응식이 주도하여 한국사진작가협회(초대 회장 현일영)가 발족하였는데 그 창립전 팸플릿을 김 관장이 입수한 것이다. 한국의 사진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957년 경북국립미술관에서 열린 <인간가족>전이다. 김 관장은 2012년에 <외국미술 국내전시 60년> 전시를 할 때 <인간가족>전 자료를 구하지 못해 기사로만 처리하고 말았는데 그 후에 1955년 미국 뉴욕현대미술관이 만든 <인간가족> 도록과 1957년 한국 전시의 팸플릿도 입수하게 되

어 희열을 느꼈다고 한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관련 자료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보도>와 <한국화보>, <사진문화> 같은 잡지다. <국제보도>는 1945년에 창간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글,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한국 최초의 사진화보라고 할 수 있는데 창간 다음해인 1946년 4호를 포함해 6권이 있고 <사진문화>는 1948년부터 발간되어 총 18권이 나왔는데 그중 7권을 소장하고 있다. 이경민 사진아카이브연구소 대표인 시사 화보잡지였다. 그는 "이 잡지는 미군정에서 이승만 정권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한국의 발전상을 외국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관련 잡지의 성격을 띠었으며 정치, 사회, 체육, 문화 등 모든 방면의 소식을 두루 전했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미국의 <라이프> 잡지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잡지인 <사진문화>는 1948년에 창간되었고 1956년에 발행인이 바뀌면서 재창간되었는데 시사뉴스를 화보 중심으로 풀었던 <국제보도>와는 달리 사진종합지의 성격이 분명하였고 사진에 대한 연구, 촬영 기법, 사진계 소식 등을 망라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제보도>와 <사진문화>는 그런 면에서 한국 사진사에서 대단히 소중한 동시에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개인 아닌 문화 자산 정책 지원 필요"

<국제보도>를 살펴보니 1947년엔 서울북보스턴 마라톤 특집 및 상해 임시정부 요인 한국 특집화보가 있었다. 1949년 책엔 김구 특집기사가 실렸고 피격당한 현장, 영결식 장면 등 보기 힘든 사진이 많이 있었다. 1954년 책엔 이순신 추모식 사진 6점도 들어 있다. 2003년 한국사진학회지에 실린 최인진의 논문 '해방 초기의 사진잡지 연구'를 제외하면 아직 <국제보도>에 실린 사진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다시피 하다.

김 관장은 "앞으로 사진계에서도 아카이브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될 것이다. 자료를 모아놓기만 해서 가치가 제대로 빛나지 않는다. 일반인이든 사진계 인사들이든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많이 활용하여 아카이브형 전시도 하고 연구도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관장은 "그동안 해온 일보다는 앞으로 할 일이 더 걱정이다. 아카이브를 쌓아두기에 물리적으로 공간이 부족하다.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쳐 폭넓은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비록 김달진박물관은 한 개인이 시작했지만 우리 미술계의 문화적 자산이 그만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글·사진 곽윤섭 선임기자 kwak1027@hani.co.kr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희귀 사진 자료.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제공

내 인생의 사진책 / 무정한 빛

## 사진 없는 사진비평, 친절한 불친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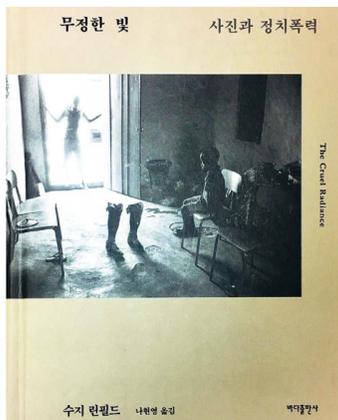
"...남편은 검은 밴드가 달린 흰 밀짚모자를 썼다. 양복 단추는 꼭꼭 잠겼고 타이는 어디 한군데 비틀어진 곳 없이 똑바로 매여 있다. 왼팔을 구부린 남편은 위로 향한 손바닥에 빵 한 덩이를 마치 귀중한 보석처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히 들고 있다..." 저자는 로버트 카파의 사진을 이렇게 묘사한다. "이 미지는 파시즘과 전쟁이라는 모멸의 순간을 거치고도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자부심 속에 스스로에 대한, 자기 세계에 대한, 우주 속 자기 위치에 대한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미지다." 이런 해석도 덧붙인다. 당황스럽다.

사진 비평책에서 사진은 신지 않은 채 글로 사진을 묘사한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 사진의 의미는 더더욱 알 수 없다. 이 책은 왜 이리도 불친절한가? 수지 린펠드의 <무정한 빛>(바다출판사, 2017)을 읽으며 드는 생각이다.

가난, 질병, 가족 해체, 알코올 중독, 싸움, 고독사, 노숙이라는 단어로 기억되는 쪽방 사람들 사진을 8년째 찍고 있는 나에게 주

위 사람들이 물어 온다. 쪽방촌을 왜 찍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왜 찍느냐는 질문이다.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던 질문이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사진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니 나름대로 실천적 대답은 갖고 있다. 이론적 대답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사진 비평서는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지 않았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음증적 접근과 그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진 비평가들이 극도로 비참한 빈곤을 보여주는 것은 사회 포르노그래피라고 비판한다. 비참함을 담은 사진은 비참함의 역사나 원인은 한마디도 설명하지 못하고(수전 손택), 의식적인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존 버거), 빈곤을 흥밋거리로 만들고 고통을 소비 대상으로 탈바꿈시킨다(탈터 베나민)고 비판한다. 쪽방 사진가로서 나는 이 비판에 동조하지 않는다. 물론 이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진가나 사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무정한 빛>을 읽은 결론부터 말하고 싶



다. 가난한 사람의 사진을 찍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저자인 수지 린펠드는 찍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대답한다. 하인리히 외스트는 유대인 게토에서 굶고 굶주리고 장티푸스로 고생하는 유대인을 찍어야 하고, 제임스 나트웨이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굶어 죽어가는 벨라루스인들을 찍어야 한다. 로버트 카파는 독일군과 싸우다 죽임을 당할 만큼은 컸지만 어린이용 관에 들어가

기엔 조금 넘치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세바스치앙 살가두는 자갈투성이 농장과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를 찍어야 한다. 나는 질병과 가난과 외로움으로 아파하는 쪽방 사람들을 찍어야 한다. 그것이 수지 린펠드의 대답이다.

쪽방촌 사람들을 왜 찍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실천적 대답과 수지 린펠드의 이론적 대답을 함께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사진에는 반드시 보아야 할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사진 속의 사람들이다. 사진 속의 가난한 사람들은 사진을 보는 사람들과 분리된 차별적 존재가 아니다. 동일한 존재이다. 값싼 동정이나 일회성 동일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바스치앙 살가두는 고통받는 노동자가 우리 시대 영웅이라고 주장한다. 살가두는 자신의 피사체에 한없는 존경을 바치며, 패배자일지도 모르는 이들을 마치 유명인처럼 칭송한다.

두 번째는 사진 밖의 사람들이다. 사진 밖에 있어 보이지 않지만 사진 속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의 사진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만든 사회의 책임을 보아야 한다. 위안부 사진에서 우리가 봐야 할 대상은 일제의 잔학함이다.

세 번째는 사진을 찍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진을 찍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동시에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불평등과 불합리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며 공감의 요청이다.

네 번째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폭력과 가난과 아픔으로부터 회피하고 도망하는 사람들이다. 쪽방촌 사진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도전이다. 그들을 향해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물이 사진이다.

수지 린펠드는 <무정한 빛>에서 불친절하게 사진을 보여주지 않은 채 글로 사진을 묘사한다. 쪽방촌의 실상을 설명하는 데에 긴 글보다 사진 한 장이 탁월하다는 것이 나의 상식임에도 저자는 굳이 그 방법을 택했다. 사진 없는 글을 선택한 저자의 의도적 불친절함은 아마도 글 없이 사진만 내미는 나의 불친절함에 대한 고도의 복수 전략일 것이다. 이 책이 내 인생의 사진책이 될 만한 이유이다.

김현(다큐멘터리 사진가,  
'사진마을' 작가마당 연재 작가)

